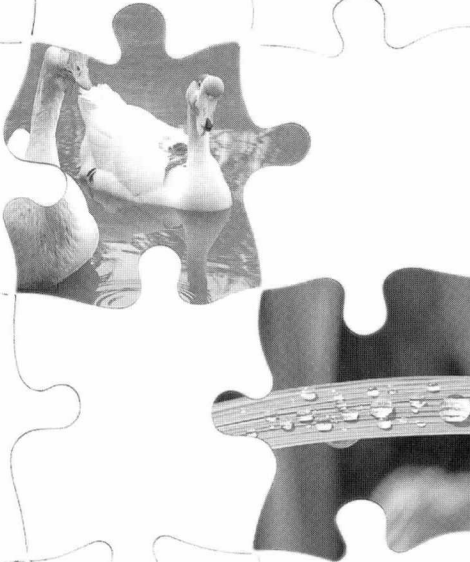


II. 일반 사양관리

체리밸리 육용(肉用)오리 사양 메뉴얼

▶ 본 원고는 영국 종오리 육종 전문회사 체리밸리 제공임



1. 육오리 입추

오리를 입추하는 시설환경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을 알아보면,

농장준비

질병전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리농장은 타 가금농장과 적어도 3km의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일령 오리계군을 입추하는 것이 최적의 차단방역을 구축하는 방안이지만 이는 오리사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아니고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경우 다일령 오리군을 입추하는 경우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오리 사육은 몇 개의 단계로 구분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육추와 사육시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서로 다른 압사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압사에서 1일령~ 출하시까지 사육되기도 한다.

적절한 입추

오리를 입추하는 시설은 오리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하고 천적, 악기후나 병원균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계사 시설물의 면이 거칠지 않아야 세척이나 소독에 효과적이다.

편안한 환경

고온지역에서는 오리들이 가능하면 신선한 환경에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고 적절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특별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Technical Desk"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물 이용과 바닥상태

오리는 물을 좋아하는 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적절히 관리해주지 않으면 바닥이 매우 젖게 된다. 압사내부에서 바닥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급수기틀(육추 이후) 슬랫이나 매쉬 위에 놓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물섬”이라 부른다. 이는 허비되는 물을 배수해내서 물이 깔짚으로 유입되어 질퍽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섬의 높이는 바닥 깔짚이 차오르는 것 때문에 사육일령에 따라 다르다. 정상적으로 0.3~0.4m의 높이면 충분하다. 물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경사면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2. 사양관리(飼養管理)

좋은 품질의 육오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장직원들의 관심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모든 농장 직원들은 사소한 관리요소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농장장은 농장 직원들이 전 오리군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가지도록 일상적인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농장분양

오리는 먼 거리를 이동하여 분양된다. 따라서 지치고 탈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 다루어야 한다. 오리들을 신속하게 육추장에 입추시킨다. 물이나 사료섭취에 둔한 오리를 발견하면 집어서 부리를 물에 찍어준다.

오리 다루기

정기적인 체중점검을 위해 오리를 잡아야 할 때는 포획 프레임을 이용한다. 프레임은 0.7m 높이의 목재 프레임에 2.5m 길이의 와이어 매쉬를 이용한 것

으로 가두었을 때 오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탄탄해야 하며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 한다.

일일령 오리들을 집단으로 잡을 때 목을 잡아주고 또는 개별적으로 잡을 때 몸통 전체를 부드럽게 잡아준다. 어린 오리나 성오리 이전 단계에서는 목이나 날개를 잡아도 되지만 일단 성오리가 되면 날개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잡을 때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받쳐주면 이상적이다.

다리를 잡아서 안된다. 오리다리는 매우 쉽게 손상된다. 또한 한쪽 날개만을 잡아서도 안된다.

고온지역에서는 오리를 잡는 작업은 하루 중 가장 신선한 시간에 해야 한다.

관리 컨트롤

표준적인 사양관리와 압사 시설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주 정기적으로 표준에 맞추어 점검 관리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문제가 있어서 액션을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주 점검에 들어가기 전에 실행해야 한다.

3. 방역위생과 질병예방

오리는 매우 건강한 축종이지만 어린 시기에는 (cmda 5주령기)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따라서 이 시기에 특별한 관리노력을 기울여야 나머지 사육기간 동안에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종압사 청소

오리가 농장에 입추되기 최소 1주 전에는 압사 및 사육기구 등을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 및 필요한 경우 훈증소독 처리해야 한다. 압사 청소 방법은 “Technical Desk”에 잘 나타나 있다. 압사 및 사육 설비는 오리가 입추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급수 라인이나 급수, 급이기에 잔여 소독액이

남아서 오리들이 독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씻어내 주어야 한다.

격리(隔離)

꼭 필요한 사람만 압사에 들어가야 하며 방문자는 방문 전에 다른 가금류 농장을 방문해서는 안된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어린 오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집 또는 작업장에서 다른 가금류, 특히 오리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된다.

깔짚

오리가 건조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소량의 깨끗하고 건조하며 부서지기 쉽고 무른 형태의 깔짚을 바닥에 뿌려주어야 한다. 오리가 물은 좋아하지만 젖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며 젖은 환경에 두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빠진다.

환기(換氣)

환기는 오리 주위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환기를 적절하게 해주어야 압사 내의 먼지, 불쾌한 공기, 깔짚의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다. 환기설비 가동을 주기적으로 조절해주어 압사 내부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암모니아 수준은 항상 1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소형 가스감지기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Technical Desk" 참조

백신과 치료

오리는 주로 3가지 질병에 영향을 받는데 이들은 모두 백신에 의해 효과적으로 컨트롤 된다.

- Duck Viral Hepatitis(DVH)
- Duck Viral Enteritis(DVE)
- Pasteurella Multocida(콜레라)

오리가 입추되는 지역에 상기 질병이 문제되는 경우 걱정 백신제조업체가 제조한 백신을 수의사의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백신공급자와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Technical Desk"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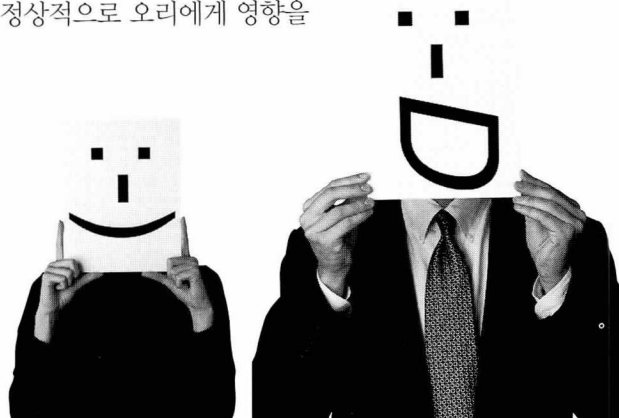
참조 :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은 매우 어린주령에 발병한다.(0~5주령) 따라서 백신은 오리 입추 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체리밸리 종오리는 DVH가 없는 원종오리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자연 면역성이 없으므로 DVH가 문제되는 지역에 입추하는 경우는 해당 백신을 실시해야 한다. 백신처리 후 8-12시간 동안 오리들을 박스에 두거나 깨끗한 공간에 두어서 DVH에 대한 면역이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적절히 백신된 종압으로부터 생산된 육오리는 해당 지역의 DVH 첼린지에 방어될 수 있는 정도의 모체 이행항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 수의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오리를 집단 사육함으로써 발병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은 Pasteurella Reimerella(Anatipestifer)과 E.coli이다.

이러한 질병은 투약으로 치료될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치료의 경우 오리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콕시듐이나 내부 기생충은 정상적으로 오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정기적인 투약이나 치료는 불필요하다. 비타민/미네랄/전해질 제제 등은 오리를 다루었거나 이동하여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 투여하면 효과적이다. 정상적인 관리 상황에서는 주기적으로 투여할 필요는 없다.

일반관리

- 종압사 내부와 외부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 효과적인 해충구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 압사에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 좋은 품질의 사료와 깔짚을 이용한다.
- 차량이나 인원 장비 진입시 바퀴 소독조, 신발 소독조, 샤워 및 방역복 착용, 소독약 살포 등 위생절차를 준수한다.
- 경고문구나 풋말을 세워 출입자에게 경각심을 준다.

4. 바닥면적

사육기간동안 단계별로 적절한 바닥면적을 제공하는 것은 오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육성을, 생체중, 사료요구율 등과 같은 성적면에서 도움을 준다. 압사를 동일한 크기의 칸막이로 나누어 칸막이 당 500-1000수의 오리를 사육한다.

1일령 ~ 7일령

농장에 입추되면서 처음 7일간은 오리들을 육추기 아래에 원형으로 가드를 설치한 공간에서 지내게 하여 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육추가드 공간은 처음에 직경 4m, 가드 높이는

0.5-0.7m의 유연한 재질의 보드판을 이용하여 셋바람이 직접 오리에 접촉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4m 직경의 육추가드 공간에 500수의 오리를 육추하는 것이 적절하다.

2일령부터 매일 조금씩 가드 면적은 넓혀준다 7일령이 되면 육추가드를 제거하여 오리들이 칸막이 전면적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7일령 ~ 18일령

나머지 육추기간동안 최소 수당 0.1m²의 공간을 준다. 압사를 동일 크기의 칸막이로 나누되 0.5-0.7m 높이의 와이어 매쉬로 된 칸막이를 이용하고 각 칸 당 500~1000수의 오리를 배분한다. 칸막이는 견고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칸막이 상태를 체크해서 필요한 경우 수리해 준다.

18일령 ~ 도압

18일령부터는 수당 최소 0.2m²의 공간을 준다. 사육단계의 시기에도 오리를 칸막이로 나누어 사육해야 하며 칸막이당 500-1000수를 유지한다.

일반관리

- 종압사 내부와 외부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 효과적인 해충구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 압사에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 좋은 품질의 사료와 깔짚을 이용한다.
- 차량이나 인원 장비 진입시 바퀴 소독조, 신발 소독조, 샤워 및 방역복 착용, 소독약 살포 등 위생절차를 준수한다.

